

## 시대정신의 전환

한 경 호(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요즘 국내외에서는 이라크 사태, 북핵 문제, 노무현 씨의 대통령 당선과 파격적(?)인 인사 등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얼른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정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 권력의 중심이 지역 원심력의 강화로 지역분권화되고 있으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세계질서를 패권적으로 농단하면서 전쟁을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로 삼는 조폭식 경영철학으로는 더 이상 세계를 리-드할 수 없고 아울러 세계평화도 그 만큼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라크 공격은 세계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를 장악하여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자국 이기적 의도가 깔려있고, 북핵문제는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에 의한 경제블럭화의 추진으로 약해지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그 동안 지체(遲滯)되어온 정치 발전에 대한 욕구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폭발적으로 분출된 사건

으로써 인터넷 매체들이 이 힘을 결집시키는데 있어서 기존의 종이 신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하는 수구 보수언론들이 대통령선거의 판세를 의도적으로 좌우했던 시대에 종언을 고한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우리는 이라크사태와 북핵문제를 통해서는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는 밝은 미래를 느낀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은 각 나라의 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겪어야할 진통이다. 산모(產母)가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산고(產苦)를 겪어야 하듯이 새 시대를 낳기 위한, 우리들이 넘어야할 고통의 언덕인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 목회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듯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그에 힘입은 산업혁명의 결과 우리의 물질생활의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문명을 가능케 한 과학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無知)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양식'의 변화가 가져온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물질생활과 정신적 가치관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는 안정된다. 물질 수준만 높아지고 정신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회와 문화는 허약해지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는 탈냉전의 시대,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탈권위적 민주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반공 냉전적 사고, 아날로그적 사고, 권위주의적 사고이다. 특히, 종교인들은 변화와 개혁 앞에 무덤덤하다. '종교' 자체가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이 자본주의와 영합해서 누리고 있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떠했나?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중심적(현상유지적 이데올로기와 시대정신)삶의 허위의식을 걷어내고 생명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경악시키지 않았던가?

삼일운동 84돌인 지난 3월1일 서울에서는 두 종류의 집회가 있었다. 하나는 보수우익단체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반핵반김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시청앞)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금식기도회'(여의도 한강 둔치)였고 다른 하나는 여중생 범대위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등 250여 단체가 행한 행사(답골공원)였다.

외세의 극복과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열망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절에 친미, 반공집회를 가진 것이 과연 3·1정신에 맞는 것일까? 이 시대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계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옛날의 원한에 사로잡혀 제 동족을 원수로 여기고 강대국에 기대어 의지하면서 사대주의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진정한 3·1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당한 외세의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국제동맹관계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헬로 헬로 씩던 껌도 좋아요"라고 노래부르고 미국에서 보내온 구제품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던 초라한 기억들은 이제 새시대의 거름으로 묻어버리고 주체적, 자주적인 존재로 거듭나야한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도움을 청하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께서 손을 들고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이사야 31:1,3)